
	<b>문화재청 50년,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b>		
<b>報道資料</b> [2011.09.30.]	<b>보도시점</b>	<b>배포 즉시</b>	
	<b>담당부서 (전화번호)</b>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02-3701-7651/7657)	
	<b>담당자 (e-mail)</b>	양진조(yjj1002@nricp.go.kr) 임지윤(jiyun17@nricp.go.kr)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국가유산종합정보서비스(www.heritage.go.kr)」에 동시게재			

## 편지로 보내는 정조의 향기

###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도록 제4책 『정조어찰』 발간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종수)은 정조(正祖)가 쓴 편지글을 한데 엮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소장품 도록 시리즈 그 네 번째 책으로 『정조어찰』을 발간하였다.

『정조어찰』은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純祖)의 생모인 유빈박씨(綏嬪朴氏, 1770~1822)의 친정, 반남박씨(潘南朴氏) 집안에 보낸 총 64통의 편지를 국역하여 수록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조어찰은 심환지(沈煥之), 채제공(蔡濟恭) 등 신하들에게 보낸 편지와 외가인 풍산홍씨(豊山洪氏) 집안에 보낸 편지 등이 일부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소개되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정조어찰은 반남박씨(潘南朴氏) 집안에 보낸 서신으로는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편지의 수신자는 유빈박씨의 백부(伯父)인 박윤원(朴胤源, 1734~1799), 유빈박씨의 아버지이자 정조에게는 장인이 되는 박준원(朴準源, 1739~1807), 그리고 박준원의 장남인 박종보(朴宗輔, 1760~1808)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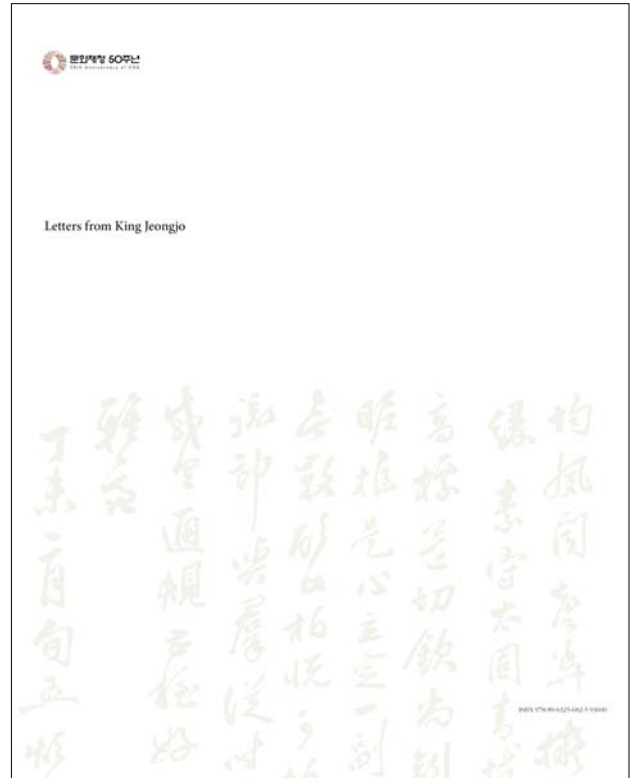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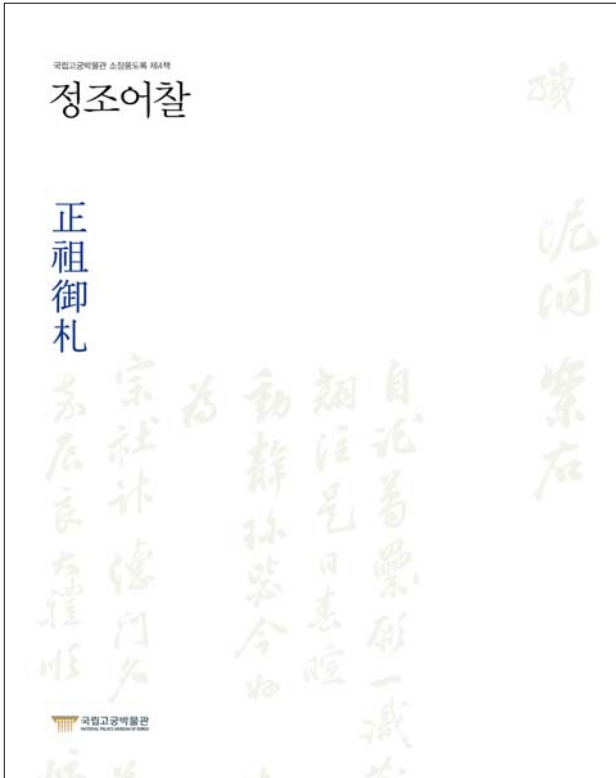
64통의 편지는 그 중 일부에만 날짜가 기록되어 있으나, 내용으로 보아 정조가 유빈박씨와 가례를 올린 1787년(정조11)부터 1797년(정조21) 이후까지 보낸 편지로 추정된다. 또한, 정조가 봉투를 봉하면서 한 서명(署名)은 본인의 이름 글자를

변형하여 만든 것으로 착명(着名)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정조의 착명으로는 유일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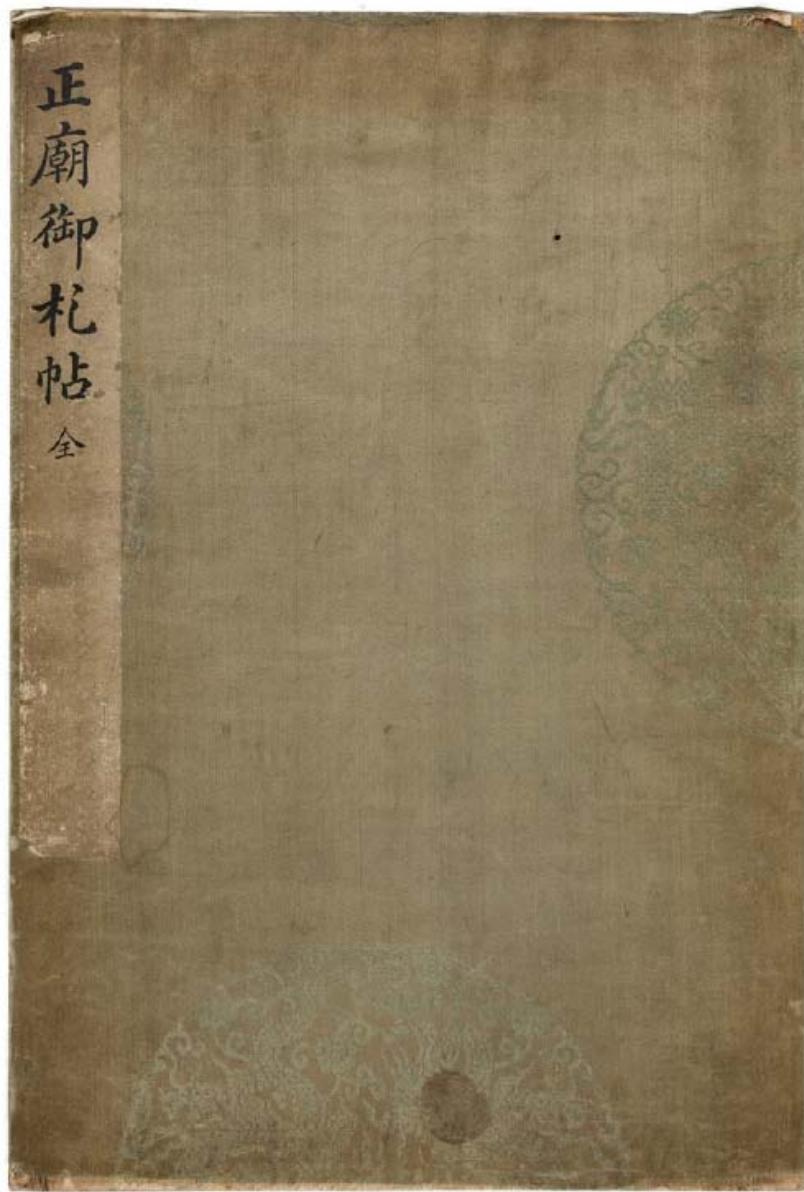
이번에 발간되는 도록을 통해, 정조가 유빈박씨의 친정 식구들에게 선물을 보내며 안부를 챙기는 다정한 모습, 당대(當代)의 저명한 학자인 박윤원과 지속적으로 서신을 교환하며 경전과 주역의 의미를 묻고 논하는 학자적 군주로서의 면모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붙임 : 관련 사진 자료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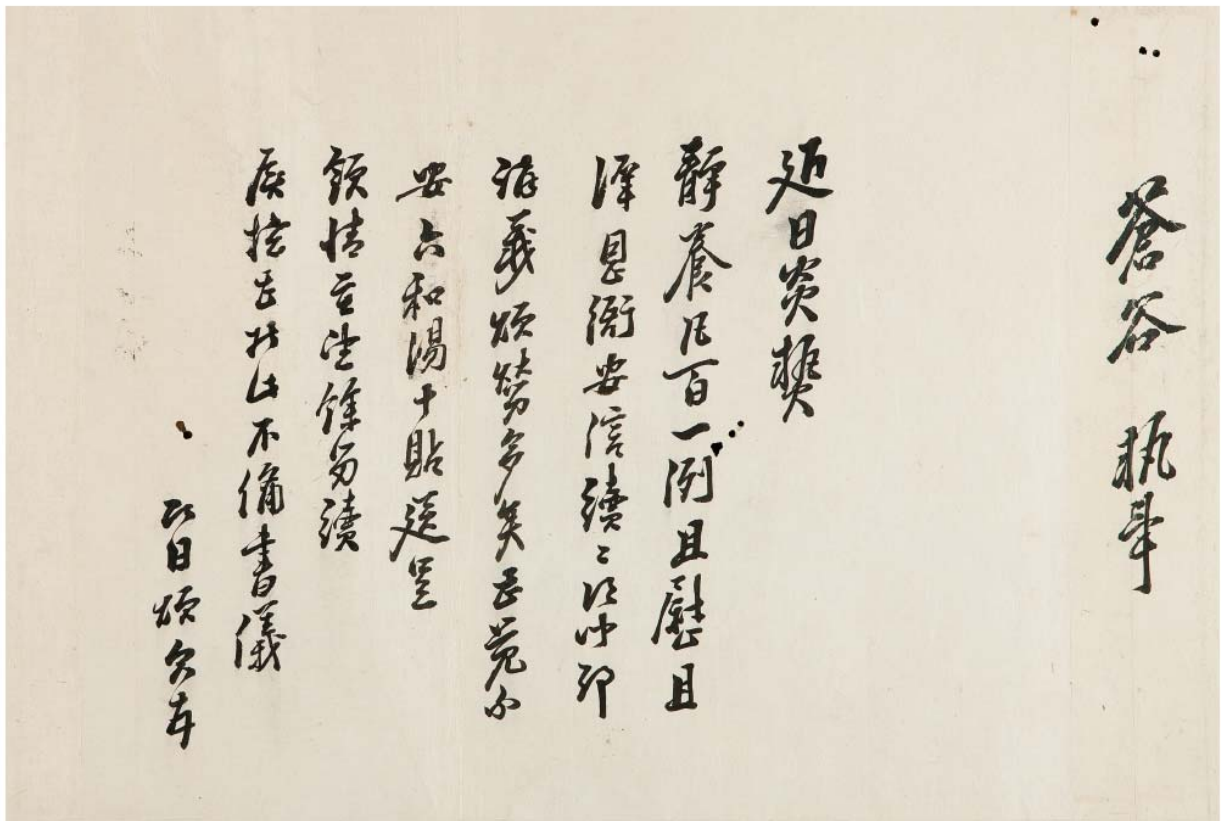
<앞뒷면 표지>



〈정조가 박윤원에게 보낸 어찰첩〉



정조가 박윤원에게 보낸 어찰첩(앞표지)



무신년(1788년, 정조12) 7월 7일 창동의 박윤원에게 보내는 편지

편지의 수신자는 정조의 후궁 유빈박씨의 숙부인 박윤원이다. 봉투의 겉면에 적힌 창동(倉洞/蒼洞)을 포함하여 창곡(蒼谷), 니동(泥洞), 종현(鍾峴), 정동(貞洞) 등의 수신처는 박윤원의 거처이다.